

인문·예술·종교학 통한 현대 불교학의 지형도는

韓佛敎학회, 1월 30일 동계워크숍

문학·사학·철학·종교학·예술학을 통해 현대 불교학의 위치와 연구 방법론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1월 30일 12시 30분 동국대 법학관 1층 모의법정실에서 2016년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 탐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통적 연구 방법론이 내재된 불교학이 문학, 사학, 종교학, 예술학 등의 현대 학문 분야와 어떻게 접목되고 연구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업 스님의 ‘문학으로서 불교문학의 지형과 방법’ △조명재 신라대 교수의 ‘사학으로서 불교사학의 지형과 방법’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철학으로서 불교철학의 지형과 방법’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의 ‘종교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 △장재진 동명대 교수의 ‘예술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이 발표될 예정이다.

토론자로선 김종진(동국대), 조경철(연세대), 김영덕(위덕대), 최종석(금강대), 정재형(동국대) 교수가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18세기 불국사 중창 ‘民·官·教’ 합심해 이뤘다

남동신 교수, ‘불국사복역공덕기’ 탁본 판독문 첫 공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파괴된 경주 불국사의 중창에 지역 불교계뿐만 아니라 관청과 낙향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기록을 담은 현판 탁본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하는 <미술자료> 제88집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돼 있는 ‘불국사복역공덕기(佛國寺復役功德記, 이하 복역공덕기)’ 탁본과 관독문을 공개했다.

‘복역공덕기’ 탁본은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1933년 7월 5일 박준하 씨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남 교수에 따르면 공개된 ‘복역공덕기’ 탁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본으로 관련한 관독문이 소개된 것도 처음 있는 사례다. 또한 탁본의 모본인 ‘복역공덕기’ 편액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아 사료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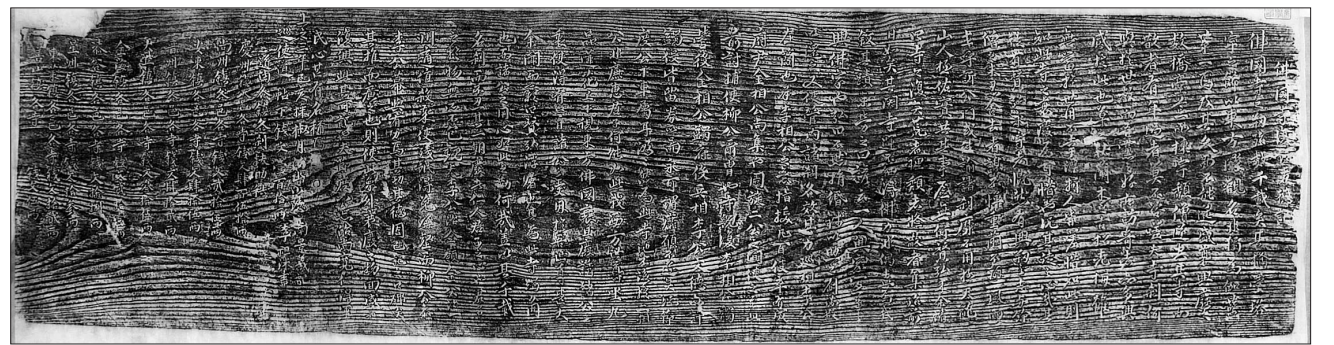
탁본의 크기는 세로 34.1cm, 가로 139cm로, 편액 조성된 시기는 1779년(정조 3년)이다. 나뭇결이 도드라진 반면 일부 글자가 흐릿해 후대에 목조 현판을 탁본했음을 알 수 있다. 음각한 글씨는 해서, 행서, 초서가 섞여 있다.

‘복역공덕기’는 전체 50행으로 2행부터 37행까지는 복역(復役, 호역을 면제 시켜주는 것) 내용을 기록했다. 38행은 찬자와 찬술 날짜가 적혀 있으며, 39행부터 50행까지는 경상도 관찰사 이하 관내 읍과 지역 사찰들이 출연한 금액을 기록했다.

‘복역공덕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을 쓴 사람은 조선 후기 경주에서 활동한 낙향 문인 남경희(南景羲, 1748~1812)로, 그가 찬홍 스님과 나눈 대화가 주를 이룬다.

남경희가 자신에게 ‘공덕기’ 찬술을 부탁하기 위해 온 찬홍 스님에게 “속답에 한 사람이 집을 일으킨다” 했는데 그대가 불가(佛家)를 일으켰다”고 칭송하자 찬홍 스님은 겸양하며 복역을 해준 관아에 공덕이 있음을 술회한다.

‘공덕기’에서 찬홍 스님은 “돈을 출연해 일을 돕고, 관내의 여러 절로 하여금 각자 힘을 다하게 한 이는 경상도 순찰사 이재간(李在簡, 1733~1789)이며, 뜻을 이어받아 기술자를 지휘해 완성시킨 것은 경주부윤 김상집(金尙集, 1723~?)이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된 ‘불국사복역공덕기(佛國寺復役功德記, 1779년)’ 탁본. 경주 지역 문인 남경희와 찬홍 스님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화 안에서 경상도 지역 관아가 불국사 중창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미술자료>88집에 판독 분석 유일한 탁본, 현판 행방 묘연 목조 현판에 復役 내용 적어 찬자와 찬홍 스님 간 대화서 중창에 지역 관·민 참여 유추 “양란 後 사찰 재건 파악 도움”

다. 둘 사이를 주선해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前 都포사 유이주(柳雨舟, 1726~1797)이다”고 공덕을 찬탄한다.

또한 “순찰사 이재간이 영역(營役)을,

부윤 김상집이 부역(府役)을 덜어주었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이문덕(李文德)이 역을 덜어줄 것을 허락했다”면서 “서방세존께서 구품연화 위에 앉아 동쪽의 불국사가 쇠폐(衰廢)한 것을 굽어보시고 제공(諸公)들의 정성을 유도해 오늘에 있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순찰사 이재간의 경우 불국사의 중창 불사에 당시 110냥을 헌납하기도 했음이 ‘복역공덕기’에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경주를 비롯한 상주, 안동, 진주, 대구, 김해, 칠곡, 동래 등에서도 보시금들이 올라왔음이 기록됐다.

남 교수는 “‘복역공덕기’ 탁본은 1779년 이뤄진 불국사 중창 불사를 파악하는데 거의 유일한 사료”라면서 “불사 주제

와 윤곽, 후원자, 지역 단위의 출연과 액수가 기록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파괴된 경주 지역 사찰의 재건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역공덕기’와 더불어 ‘불국사대웅전중창단략기(佛國寺大雄殿丹雘記)’에는 18세기 중후반 일련의 불국사 중창 불사를 주도한 불국사 스님들과 지방관들, 학문과 교육에 전념한 유학자들 사이에 협력 관계를 생생하게 증언한다”면서 “이는 양란으로 파괴된 사찰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지방 사찰들이 참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아시아 종교연구 위한 전문 학자 포럼 창립된다

2월 20~21일 창립세미나

동아시아 종교연구자들의 전문 연구 포럼이 창립된다.

동아시아종교연구포럼 한국 측 운영위원회(위원장 신광철)는 2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창립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동아시아종교문화학회’는 지난 2010년 8월 일본 덴리(天理)대학에서 제2회 학술대회 개최를 논의된 이래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전임 이사회 임원 등 주요 회원들이 학회 재상을 위해 논의를 거듭해 새로운 명칭으로 재탄생한다.

창립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종교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현재 발표와 토론 등에 대한 참가 신청을 홈페이지(earf.web.fc2.com)를 통해 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丙申年 새해엔 불교 공부 해볼까

초기불교부터 과학까지... 불교 강좌 ‘다채’

2016년 새해부터 다양한 불교 강좌가 예정 중이거나 시작됐다. 주제도 초기 불교와 불교학, 과학과의 융합까지 다채롭다.

서울 법련사와 근본불교연구회는 이종표 전담대 철학과 교수를 초청해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에서 1월 18~22일(저녁 7~9시), 광주 연화사에서 1월 11~15일(저녁 7~9시), 구례 화엄사 포교당에서 1월 25~29일(저녁 6~8시) 3차례 나눠 이뤄진다.

이번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근본불교 경전인 <니까야>와 <아함경>을 통해 대승부 경전인 <금강경>을 해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초청강사 이종표 교수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진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지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강의는 조계종의 종지가 초기 경전인 니까야에 근거를 둔 불교의

정통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불교가 소승과 대승의 무의미한 논쟁에서 벗어나 고통에 빠진 사회를 구원하는 불교 본연의 불사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법련사·근본불교연구회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강좌 이종표 교수 초청 1월 개최 미분, ‘불교학 입문’ 강좌 시작 3월 중 과학·불교 접목 강의도

지난해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을 일으켰던 미래부다카카데미(대표 이학중, 이하 미분)는 1월 5일부터 권오민 경상대 교수를 강사로 ‘불교학 입문 강의’를 시작했다. 매주 화·수요일 진

행되는 이 강좌는 불교학의 의미와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조망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분아카데미는 상반기 강좌로 과학과 불교를 접목한 강의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불교안의 과학, 과학안의 불교’를 주제로 이뤄지는 강의는 현대물리학을 비롯해 진화생물학, 천문학, 수학, 뇌과학 등의 분야에서 불교 사상을 어떻게 투영할 수 있지를 조망한다. 총 12강으로 3~4월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3월 중 김순형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다신전’ 강의와 하반기에는 프랑스 현대철학자이자 불교 사상을 주제로 장기적 강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중 미분아카데미 대표는 “이웃종교는 삼류 상품을 포장해 백화점에서 팔고 있고, 불교는 초일류상품을 노점에서 팔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강과 같은 가르침을 제대로 활용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불교 강좌가 필요하며 불자들 역시 탐마하고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석남암사지 비로불좌상 국보 승격

문화재청, 7일 발표... 보물 지정 및 예고도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보로 승격됐다. 또한 불교 성보 문화재에 대한 보물 지정과 지정 예고도 잇달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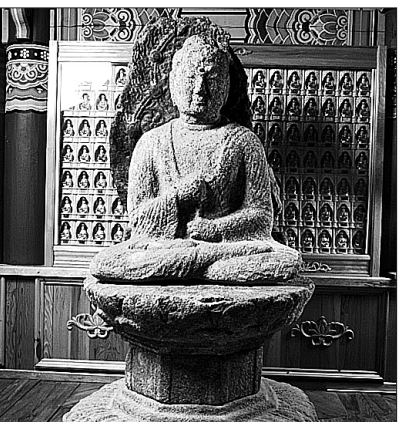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

홍천사 42수 관음상 등 지정 부산 운수사 대웅전 지정예고

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보로 승격 지정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766년(혜공왕 2)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지권인(智拳印) 비로자나불상으로, 제작 연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고대 조각사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유물이다.

그간 학계는 지권인을 한 여래형 비로자나불이 9세기 중엽 나타났다고 보았으나 이 석조좌상의 발견으로 8세기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중엽부터 지권인 비로자나불이 조성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신년을 맞아 보물 지정과 지정 예고도 잇달았다. 문화재청은 1월 7일 국보 승격 지정과 함께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으며, 구암 31일에는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등 5건을 보물 지정했다. 1월 5일에는 부산 유령문 화제 91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신성민 기자

서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대상: 종단을 구분하지 않고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분들 (재가자·남신도, 여신도 포함). 모집인원: 20명. 학비: 연 100만원. 개강일: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강사진: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님, 특강강사. 교육과정: 전문과정: 2년 / 연구과정: 4년 / 교수사과정: 7년. 강의시간: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문의: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사무실 / 02-414-1222, 010-8969-9444 (지암스님), 010-7225-8426 (명혜스님).

두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는데 잠이 안와! 폭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유 ≈ 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견적이 쌓여 못자고, 못수고, 못물고. 침대에 쓰러지면 위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짜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빠근 바른 베개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임벌리고 자면 골방 (임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골 건조 원인). ※ 램블스테이에서 외산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 x 60팩 (IBOX)).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02) 879-2007. 입금안내: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